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월간자산운용보고서

(준법감시인심사필2010-82호)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증권 투자신탁 C호(주식)

2010년 02월

Fund Fa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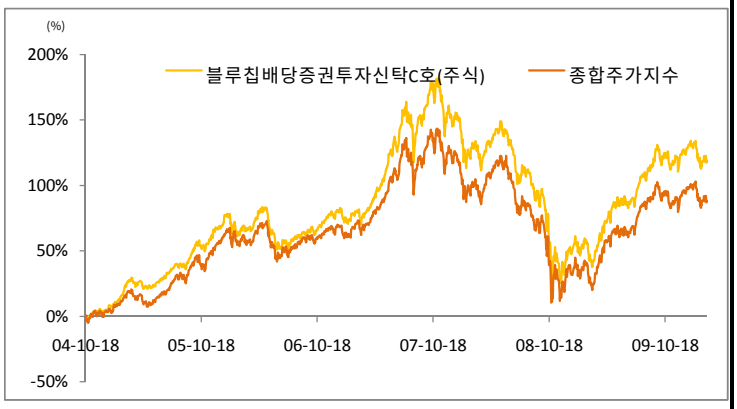
투자 목적	자산의 90%이상을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중 고배당 종목 위주로 투자하여 주가상승 이익과 배당이익을 함께 추구합니다. 보조전략으로 커버드콜전략의 실행을 통한 콜옵션 매도 수입의 축적으로 주가하락 위험을 일부 헤지하면서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운용개시일	2004-10-19
펀드 규모	3,487 억원
총보수	선취판매수수료1%+신탁보수 연1.7%
환매수수료	없음

펀드운용실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블루칩배당증권투자신탁C호(주식)	-0.22%	1.79%	3.66%	52.99%	118.90%
종합주가지수	-0.49%	2.51%	0.17%	50.00%	86.33%
초과수익률	0.27%	-0.72%	3.49%	2.98%	32.57%

수익률 추이

(2004.10.19~2010.02.26)



펀드매니저 리포트

지난 2월 한 달간 펀드수익률은 -0.22%였으며, 동 기간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은 -0.49%를 기록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보다 나은 수익률을 기록한 이유는 현대차, 기아차를 포함한 자동차 업종과 석유화학 업종의 편입 비중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배당 종목인 통신/유틸리티 업종의 수익률이 부진하였으나, 건설/은행 업종의 비중 축소 등을 통해 만회를 할 수 있었으며, 업종내 종목선택 효과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기아차, 삼성엔지니어링, 글로비스, 현대차, 호남석유, 현대해상, 삼성전기, 한진해운 등과 같은 보유주식의 주가흐름이 양호했고, 반면에 LG디스플레이, POSCO, KT, 한국전력 등은 시장 대비 부진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주식시황

지난 2월 주식시장은 양호한 기업실적 발표와 선진국 경기호조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유럽발 금융위기 및 중국의 유동성 축소정책 등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월초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채무건전성 문제와,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가 제기되며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한국 주식시장은 저평가 매력으로 1,550pt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었으며, EU국가들의 공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순 이후 주식시장은 다시 1,630pt를 상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 말 중동국가 UAE의 두바이 홀딩스 관련 파산선언 가능성과, 부진한 미국경기 지표 등으로 재차 소폭 하락하여 1,594pt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그 동안 소외되었던 교육/제지 업종이 벨류에이션 매력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자동차 업종 역시 양호한 실적과 도요타 리콜 이슈관련 반사이익 기대감 등으로 시장 대비 성과가 좋았습니다. 반면, 1월 큰 폭으로 상승한 통신업종은 과다한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큰 폭 하락 하였으며, IT제품 가격 하락 가능성과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로 전기전자 업종도 시장 대비 성과가 부진하였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펀드에서 현물주식은 95% 내외의 수준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보유분의 80% 내외를 블루칩 배당포트폴리오로 구성하며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중 고배당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식보유분의 나머지 부분은 중소형 고배당종목 중에서 엄선한 마이다스고배당주로 구성됩니다.

① 블루칩배당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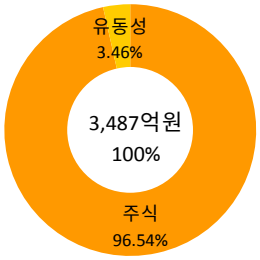
블루칩 배당포트폴리오 기아차, 현대차,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등의 수익률이 양호했으며 POSCO, 현대건설, LG디스플레이, KT 등의 수익률이 저조했습니다. 지난 달은 현대차, STX팬오션 KB금융, 신세계, 삼성전기 등을 순매수 하였으며 LG디스플레이,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GS건설 등을 순매도 하였습니다.

② 마이다스고배당주

마이다스고배당주 중에는 대신증권우, 강원랜드, 케이피케미칼, S-OIL우 등의 수익률이 양호했으며 진로, 소디프신소재, 성광벤드, 현대푸드 등의 수익률이 부진했습니다. 지난달은 GS글로벌, 태웅, 아모레퍼시픽 등을 순매수 하였으며 제일기획, 대한제강, 메리츠화재 등을 순매도 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2010.02.28 기준]



상위보유종목

[2009.12.31 기준]
(순자산총액 비중 59.73%)

1. 삼성전자
2. POSCO
3. 현대차
4. KB금융
5. 신한지주
6. LG화학
7. 현대모비스
8. LG전자우
9. KT
10. 한국전력
11. SK에너지
12. 현대건설
13. 현대제철
14. 삼성테크윈
15. LG디스플레이
16. 삼성엔지니어링
17. 삼성전기
18. S-Oil우
19. LG상사
20. CJ제일제당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